

47. 인류에 대해 사탄이 계획한 전쟁 & 너희들은 반드시 용서해야해!

2015.04.15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주님은 오늘밤 군청색 옷을 입으셨고 밤이 지나면서 저희가 춤을 추고 있을때 저는 주님께서 온갖 종류와 색깔의 뱀지가 있는 군복을 입고계신것이 보였어요.. 사령관이요.

(예수님) 그래 이 전쟁은 거의 다가왔어. (이 메시지는 원래 2015.04.15일에 주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연극은 모두 대본으로 작성되어있고, 하나씩 차례대로 그 연극을 시작할 것이고, 모든 연기자들은 운명이 정해져있어.

죄의 남자인 오바마는 그 가운데에 서있어. 그를 위한 대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완료되었어. 각각의 연기자는 그들이 역할과 명령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오직 남은 것은 시작하는 것뿐이며 적절한 때에 신호가 주어질 거야.

이 전쟁이 사탄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될지. 그래서 내가 전쟁을 보류하기 바랬던 이유야. 하지만 때는 그 충만함에 이르렀고 전쟁은 지금부터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어. 인류 역사상 이러한 잔학한 행위가 계획되고 실행되어진 적이 없으며, 세계 역사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악의세력과 완전하게 협력함으로써 만든 온갖 더러운 것과 질병에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로 정한 때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수백만 영혼들의 학살이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불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을 거야.

나의 신부들은 이것들을 어느것도 보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나와의 연합으로 민감한 장소로 들어왔고, 그것이 인류에 닥치게 될 공포에 노출되지 않게 할 거야.

(클레어) 하지만 주님, 그들은 핵공격 있을때 지구에 있을까요?

(예수님) 내 사랑아 이것은 오직 슬픔의 시작일뿐이야. 오직 시작일뿐이야. 재앙의 파도가 계속해서 지구에 닥칠 거야. 핵전쟁으로 인한 소멸은 많은 재앙과 심판중 오직 하나에 불과해. 나는 너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를 원해. 사람의 사악함이 스스로 초래한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한 것이 될 거야.

(클레어) 저는 정말로 알고싶지만, 만약 이 지식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아주 아주 작은 사람아, 그 지식은 영혼들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야. 그것보다도 나는 너가 이 양의 우리로 데려온 양떼의 마음에 초점을 두기를 원해. 클레어,

그들은 나의 신부들이고, 그들이 얼마나 나를 갈망하는지. 나를 향한 그들의 슬픔과 갈망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들의 댓글을 읽을때면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가 전에도 너에게 말했듯이, 우리의 때에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야. 내가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을 보는 것은 나에게 너무 힘들어. 나는 그들 모두를 각각 방문하고 싶지만 그들은 반드시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해.

(클레어) 오 주님, 주님은 주권자이신데 그들이 절대로 잊지 못할 한번의 방문을 그들에게 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들은 저를 보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갈망해요. 이것은 그들이 더 집중할 수도 있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예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냥 내려오셔서 그들 모두를 주님의 달콤한 영광과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없으세요?

(예수님) 나의 자녀야, 나는 그들 각자에게 적절한 때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들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을 바래. 클레어, 이것은 매우 간단해, 내가 많은 것들을 요구해? 응?

(클레어) 아니요 주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순종할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찾을 거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나는 너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았으면해. 마음에 비통함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너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와 동시에 나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듣는 것을 기대해라. 이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해라. 너의 유튜브 채널에는 자기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들이 나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너가 용서의 목상을 그들과 함께하도록 하였어. 하지만 일부는 이것을 하지 않았어.

나는 나의 신부들이 내 앞에서 깨끗해지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고, 만약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깨끗해질 수 없어. 그리고 여기에는 너희들 자신의 죄들에 대해 너희들이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 그래서 너는 너가 전화를 끊도록 내가 허용한 것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만약 너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너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다면, 너는 독이든 잔을 마시고 있는 것이고 죽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닐 거야. 넘어가고 계속 나아가자.

(클레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하지만 저는 마음 속으로 그녀에 대한 증오를 느껴요. 저는 그렇게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해야 할까요?

(예수님) 그녀를 사랑과 존중이 절실히 필요한 나병환자로 생각해라.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클레어, 나는 그녀를 돌봐주고 사랑할 사람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녀를 위해서 너의 마음에 예외를 만들어줄 수 없어?

(클레어) 에스겔로부터의 많은 기도 끝에 저는 그녀를 용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주님의 지혜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내려놓을 것이예요.

(예수님) 고마워 클레어. 그것이 옳은 일이야. 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지혜를 보게 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커버해왔고 계속해서 너를 위해 커버할 거야. 고마워 나의 신부야. 나는 너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너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녀가 너의 친절함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야? 적절한 때에 이 상황은 반전될 것이며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사랑과 용서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마음을 아주 잘 주게 될 거야. 적어도 너는 내가 요청한 모든 것을 하였어. 나는 더 요청할 수 없었어.

(클레어) 주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이것이면 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클레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예수님) 너희들은 전쟁 직전에 있어. 내가 너에게 오늘 밤 군복 차림으로 찾아온 이유는 그곳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클레어) 주님은 엄숙해 보이셨어요.

(예수님) 그래, 나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고, 이것은 나에게 극도의 고통을 가져다줘. 그래도 너에게 위로를 받아서 좋았어. 나는 너희들의 주변에서 긴장이 더 증가하고 강렬해지는 것을 알고 있어.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 전에, 즉,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전쟁으로 죽기 전에, 나는 너희들 모두가 더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오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견디고 있는 고통을 금식 공물로 바치기를 원해.